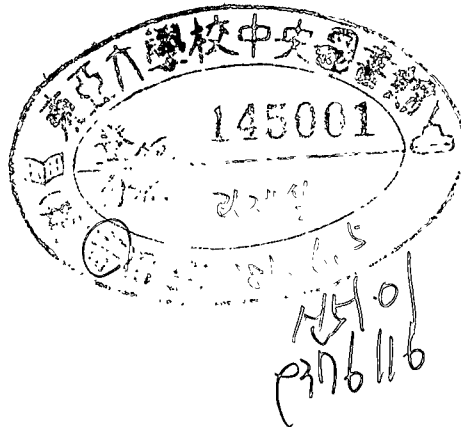


李 箱 文 學 論

— 作品에 投影된 精神分析學的 要因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具 然 軾

姜成一教授寄贈圖書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77년 12월 30일

東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專攻

申 尙 澈

※ Summary

The Research on I-Sang's Literature.

—Psychoanalytical elements projected in his works—

Shin, Sang Chul

In this paper, the writer surveyed the psychoanalytical aspect of I-Sang's works that has sur-realism, neo-psychological character based on many materials and researches by pathological method related to consciousness.

The aspects projected in his poet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on of 'I' in his poetry and 'I' (ego) at the disruption of self in over-self consciousness is on the mirror.

The atmosphere swirling in the poetry is dark and unrest. I-Sang's esprit is in the emancipation of 'Be in prison' with dismal faces and 'another different myself'.

Second, the outstanding phase in I-Sang's poetry, sexual amusement is expressed in terrific style for instance, the sword of 'submersion', the farrel of 'muzzle of the gun' and the chocolate of 'the confession of unreasonable woman' and 'angels of performance' are the metaphorical penis.

Third, the other feature found in his poetry is impetus for suicide. Though 'the canvass of suicide' is shown in his 'poetry, No 15' and 'subject that has no title', he provides suicide to the extent of 'I insert autographical obituary in my autobiography on the day' in his poetry '1933. 6. 1'

The aspects which has psychoanalytical elements in his prose are as follows:

Firstly, the point is that he deals with the thing beyond common sense and unconscious world rather than his literary world, daily lives, or conscious world. By examining the expression of his 'when the finger is taken prisoner of self-consciousness' or 'the secret of the last moment stretching oneself on the summit of self-consciousness' in his first

person fiction, 'all his life', we realize that his fictions are based on his experiences, and depict the world of self-consciousness.

Secondly, the heroes in his fictions, for the most part, are autism patients with their backs towards reality squeezed into themselves.

The pulling over coverlet in the dark room without any outside negotiation is 'my' life in 'wings' and 'genius turned into stuffing'. All characters in the 'I' of 'Tonghae', 'he' of 'spiders' and 'I' in his essay 'Languor' are the same types.

Thirdly, the other aspect searched out in his fictions is that sexual amusements are placed all over the works as in his poems. The putting memorial stamp on the fiction 'bobbed hair' that means his important erotic mind is the metaphor of sexual intercourse. This sexual amusement is expressed more metaphorically in 'spiders'.

Fourth, another aspect in I-Sang's fiction is impulse of suicide as in his poetry. The last subdivision of 'TongHae' means the thinking of suicide looking at the comedy (the man replacing his shoes with another) the impulse of suicide like this is traced in 'Lost Flowers' 'Illusions' and his essay, 'The rest emotion of a village).

李 箱 文 學 論

—작품에 投影된 精神分析學的 要因을 中心으로—

申 尚 澈

<目 次>

※ Summary.

I. 緒 論

II. 本 論

1. 前 提

2. 精神分析學的 要因들

1) 詩에 投影된 樣相

2) 散文에 投影된 樣相

III. 結 論

I. 緒 論

李 箱은 1910年 9月 23日 서울 사직동에서 나서 1937年 4月 17日 日本東京帝大 附屬病院에서 永眠했으니 26年 7個月을 채 못 채우고 만 것이 그의 平生이다. 鄭芝裕이 李箱으로 하여금 「가톨릭青年」誌에 「꽃나무」, 「거울」 등을 發表케 한 1933年 7月부터 출발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의 活動期間은 3年 9個月밖에 안 되는 셈이다.

1934年 7月 24日부터 李泰俊의 주선으로 「조선 중앙일보」에 烏瞰圖가 발표되자 「미친놈의 잠꼬대」, 「개수작」 등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30號를 예정으로 始作했다가 15號를 끝으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거센 바람을 일으켰던 그는 생전에도 많은 話題를 뿌렸듯이 死後에도 그의 生涯와 文學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성고등공업 건축과를 졸업하던 1929년부터 총독부의 건축 기수가 되었다가 咯血 때문에 퇴직한 것이 1933年, 그 해 황해도 백천 은천에서 술집 작부이던 錦紅이를 만나 둘이 함께 짝이 되어 종로로 돌아와 茶房「제비」를 경영하다가 1935년에는 仁寺洞에서 카페「쓰루(鶴)」를 引受하나, 未久에 실패하고 만다. 그 해 茶房「69」—식스 나인—을 設計하지만 開業前에 양도되고 明治町에서 茶房「무기(麥)」를 경영하나 그것마저 실패, 1936年 6月에는

姪이라는 女人과 새로 살림을 시작하지만 그 해 9月에는 혼자 東京으로 脫出, 그곳에서 最後를 맞게 된다. 이렇게 그의 生活도 平凡하지 않거니와 그의 文學 世界 또한 特異했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數十年씩 떨어져도 마음놓고 지낼 作定이나.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지만, 게을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시 詩 만듦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 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2千點에서 30점만 고르는 데 涙을 흘렸다. 31年, 32年 일에서 龍 대가리를 떡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해 배암 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만두어 서운하다.....

이것은 스스로가 쓴, 發表조차 안 될 中斷의 辯이다. 자만과 치기가 엇보이지 않는 바 아니지만, 그 自身の 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난해한 一面과 先時代의인 一面은 그의 文學을 多角的으로 研究케 하는 要因이 된다.

사실 李 箱에 대한 先研究는 어느 누구의 것보다 많다. 그러나 李 箱文學이 갖는 特性들은 그를 더 많이 研究해도 좋을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實情이다. 筆者는 이미 意識에 관련시킨 病理學的 方法론으로 그의 文學를 研究한 先研究들을 바탕으로 超現實主義, 新心理主義的 性向을 띄는 그의 文學에 정신분석학적 양상이 어떻게 投影돼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데 本稿의 취지가 있다.

Ⅱ. 本 論

1. 前 提

어떤 이는 프로이드의 업적을 人類가 지금까지 경험한 三大通事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코페르니쿠스(Nicholaus Copernicus, 1473~1543)에 의하여 地球 中心의 꿈이 깨어진 것이 그 하나며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학설에 의하여 神의 아들로 自處하는 人間의 自慢이 무참한 상처를 받게 된 것이 다른 하나며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해 인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無意識에 질질 끌리는 가련한 동물임이 밝혀진 것이 또 다른 하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人間의 心的 過程을 그 自體로써 無意識的이라고 본 프로이드는 人間의 意識構造를 意識(perceptual conscious), 前意識(preconscious), 無意識(unconscious)의 세 부분으

로 나누고 性格構造를 他我(id), 自我(ego), 超自我(superego)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意識은 自覺狀態에서의 心的 內容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신뢰성이 없는 것이요, 前意識은 聯想에 依해 意識으로 再現되는, 意識 一步 前의 단계로 곧 意識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인데 반해 無意識은 心的 內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과 충동등이 잠재해 있다가 의식적인 행동과 思考에 영향을 미치는 動機가 된다고 說明한다.

人間的 意識構造가 이러한데 비해 그 性格構造를 보면 id는 무의식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상태지만 生의 本能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충동적이요, 동물적인 표현으로써 自己滿足을 求하려 하는 것이요, ego는 個人的 환경과 交涉할 때 일어나는 여러 기능을 주관하는 실체로서 id의 活動을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며 superego는 id, ego에서 발전한 부분으로 理想 또는 道德의 善을 追求하려 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 部分의 調和를 이루고 體系가 統一돼야 完만한 情緒生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人間的 복잡한 에너지 體系가 精神現象에도 똑같이 作用한다고 가정하여 心的 에너지를 libido라 하고 id에 자리잡고 있는 이 libido는 eros(生의 本能)와 thanatos(死의 本能)로 나뉘지는데 eros의 거의 大部分이 위에서 말한 性的 衝動(sexual impulse)과 有關한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사실 그는 위와 같은 主張으로 하여 反社會科學主義, 汎性慾主義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學說은 확실히 경이적인 것이었다.

그는 意識이라는 古典的 心理學의 概念을 깨고 意識은 다만 廣大한 마음의 極小 領域에 不過하며 無意識이야말로 마음의 大部分이라고 보았으며 억압되어진 幼兒의 性愛活動이 인간 異狀心理에 숨겨진 動因임을 밝히고 意識的, 無意識的 性愛活動이 빛어내는 役割을 強調했다.

그의 이러한 主張은 많은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광범한 지지와 공명을 얻게 되었고 임상심리학에서 이 학설을 도입함으로써 그의 무의식 심리학은 확고한 기반을 이룩했을 뿐더러 文學에서는 신심리주의, 초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그의 학설을 근거로 하여 정신분석학적 비평, 원형적 비평, 신화적 비평 등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브레통(André Breton, 1896~1966)에 의해 시작되는 超現實主義 詩나, 조이스(James Au-

gustine Joyce, 1882~1941)나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에 의해 비롯되는 新心理主義 小説들이 다 프로이드의 영향을 입은 것이라면 李箱文學에는 精神分析學的 樣相이 어떻게 投影돼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2. 精神分析學的 要因들

1) 詩에 投影된 樣相

超現實主義가 無意識의 世界를 自動記述法에 의해 無作爲로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때 李箱의 作品이 과연 超現實主義나 아니냐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될 것이다.

李箱의 詩를 超現實主義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超現實主義는 第1次 世界大戰을 前後하여 생겨나 李箱이 文壇에 등장할 무렵에는 우리 나라에도 알려지고 있었다. 李箱의 詩도 메타포어의 深化나 이미지의 메포르메 등에 있어서 초현실주의를 탐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超現實主義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超現實主義가 무의식 세계의 自動記述이라고 한다면 李箱의 詩는 超現實主義가 아니다. 知性的 詩이기는 해도 無意識 世界 云々の 詩는 아니다.¹⁾

1930년대의 超現實主義 운동도 詩史上 특기할 만한 일이다. 李箱을 비롯하여 『三四文學』의 李時雨·申百秀 등의 一派를 詩史上 '超現實派로' 규정한다. 申百秀·李時雨 등은 슈르레알리즘의 〈斷絶된 論理〉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듯하나 그들의 작품이 너무 적다. 李箱이 그 그루우프의 대표다.²⁾

앞것은 鄭泰裕의 見解요, 뒷것은 文德守의 主張이다.

李箱 等の 作品이 超現實主義나 아니냐의 문제는 그 範圍의 문제요, 觀點의 差異다. 超現實主義 本來의 잣대에 견주어 보면 그것들은 그 範圍 밖에 있다 하겠지만 韓國의 土壤 위에서 자란 超現實主義가 반드시 本來의인 것일 수만은 없다는 觀點에서 보면 그것도 超現實主義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보아 李箱 詩의 作中 「나」는 自意識 過剩 속에서 自我分裂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id 속의 나든 superego 속의 나든, 分裂을 일으킨 또 다른 나든, 그것이 머무는 자리는 거개가 거울이다.)

1) 鄭泰裕, “桂密默, 金裕貞, 李箱의 文學” 『韓國文學 全集』六 (서울; 語文閣, 1976), p. 534.

2) 文德守, “解放前後부터 1950년까지의 詩壇概觀” 『新韓國文學全集』一六 (서울; 語文閣, 1976), p. 525.

거울속에는소리가없오.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오.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握手를받을줄모르는一握手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 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오마는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의로된事業에굴뚝할께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마는
또페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조심하고診察할수없으니퍼섭섭하오.

—<거울>—

「나」와「거울 속의 나」는 하나이면서도 사실은 별개다. 「거울 속의 나」는 主體인 「나」를 映寫한 현상이 아니라, 「至今 거울을 안가졌오마는 거울 속에는 거울 속의 내가 있」는 그런 잠재의식 속의 나일 수가 있다.

그의 言語道斷은 그의 文學의 本領인 自意識의 문제에 다다르면 아연 그 精華를 보여 주게 된다. 詩「거울」은 그러한 문제가 선연히 비쳐져 있는 거울이다. 李箱의 전 작품 중에서 이렇게 순하디 순한 얼굴을 한 詩는 달리 예가 없다.³⁾

이 시의 형태는 自意識의 드라마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란 일상 생활 속의 자기와 본래적인 自己, 이 두 개의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인은 누구나 이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현대인이 가진 兩面性(ambivalence)이다. 李箱의 소설, 수필, 시 등 전작품에서 이 양면성의 갈등이 주제로 되어 있다. 거울이라는 논제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다.⁴⁾

3) 金烈圭, “現代의 言語的 救濟와 李箱文學”, 知性, 2卷 2號, p. 123.

4) 金允植, 「韓國近代文學의 理解」(서울; 一志社, 1973), p. 227.

李箱에 있어서 「거울」은 내 아닌 내가 드러앉은 하나의 자리다. 그런 거울은 위에 든 作品 외에도 扉詩明鏡, 鳥瞰圖中 詩第七號, 詩第八號, 詩第十號 나비, 詩第十五號, 線에 關한 覺書 7, 一九三一年 等 도처에 있거니와 그 「거울」은 또 다른 형상으로 代置되기도 한다.

찢어진 壁紙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幽界에 絡繹되는 秘密한 通話口다. 어느 날 거울가운데의 鏡中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쳐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通話口를 손바닥으로 꼭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 드키 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袂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

—〈詩第十號 나비〉—

그사기컵은 骸骨과 흡사하다. 내가 컵을 손으로 꼭 쥐었을 때 내 팔에서는 난메 없는 팔 하나가 接木처럼 돌히더니 그 팔에 달린 손은 그사기컵을 死守하고 있으니 散散히 깨어진 것은 그럼 그사기컵과 흡사한 내 骸骨이다. 가지났던 팔을 배암과 같이 내 팔로 기어 올리기 전에 내 팔이 或 움직였던 들 洪水를 막은 白紙는 찢어졌으리라. 그러나 내 팔은 如前히 그사기컵을 死守한다.

—〈詩第十一號〉—

위에 보인 「詩第十五號 나비」에서의 「찢어진 壁紙」는 「거울」에 代置되는 것일 수 있고 「죽어가는 나비」는 「또 다른 나」일 수 있는 것이요, 「詩第十一號」에서의 〈그 사기컵〉과 〈내 骸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自我分裂은 「無題」를 비롯한 많은 作品에서 볼 수 있다.

한개 捲煙불이 손가락에 옮겨 붙으릴 적에 果然 나는 내 마음의 空間에 마지막 가 떨어지는 부드러운 音響을 들었더니라. 處心은 재떨이를 버리듯이 나를 쫓고 完全한 空虛를 試驗하듯이 한 마디 노크를 내 옷깃에 남기고 그리고 調印이 끝난듯이 빗장을 미끄러뜨리는 소리

—「無題」에서—

哀話가 註釋됨을 따라 나는 슬퍼할 準備라도 하노라면 나는 못건더 帽子를 쓰고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 웬 사람하 나가여기 남아내 分身提出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位置」에서—

「無題」에서는 일단 「나」와 「내 마음의 空間」으로 分裂되는 樣相을 보게 되는데 「處心」이 「재떨이를 버리듯이」 「나」를 쫓아 버릴 때 거기에 형성되는, 「完全한 空虛」는 순수 의식의 世界가 되고 「한 마디 노크를 내 옷깃에 남기고 그리고 調印이 끝난듯이 빗장을 미끄러뜨리는 소리」는 意識 속의 내가 도망 가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位置」에서 보게 되는 「나」와 「웬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못 건더 帽

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버린 「나」는 현실의 나요, 「웬 사람 하나」는 순수 의식이니 그는 「여기 남아 내 分身 提出할 것을」 잊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意識 속의 나와 無意識 속의 내가 分裂되면서 갈등을 빚는 곳에 李箱 詩의 特性의 하나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鳥瞰圖中 「詩第四號」를 보자.

詩 第 四 號

患者의 容態에 關한 問題

I	I	I	I	I	I	I	I	I	I	I	·
S	S	S	S	S	S	S	S	S	S	·	I
E	E	E	E	E	E	E	E	·	S	S	S
A	A	A	A	A	A	A	·	E	E	E	E
G	G	G	G	G	G	·	A	A	A	A	A
Θ	Θ	Θ	Θ	Θ	·	G	G	G	G	G	G
V	V	V	V	·	Θ	Θ	Θ	Θ	Θ	Θ	Θ
8	8	8	·	V	V	V	V	V	V	V	V
e	e	·	8	8	8	8	8	8	8	8	8
0	·	e	e	e	e	e	e	e	e	e	e
·	0	0	0	0	0	0	0	0	0	0	0

診斷 0.1

26. 10. 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詩第四號」는 결코 난해한 시가 아니다.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세상 모든 풀이 거꾸로 뒤집혀지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즉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를 <責任醫師 李箱>이 「診斷」해 보니 그렇더라는 현대문명에 대한 절망의 진단서이다. 그것을 李箱은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써 표현했다.⁵⁾

「詩第四號」는 林鍾國의 見解처럼 現代文明 내지는 現實世界에 대한 診斷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단순히 거울에 비친 한 단면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의 「患者」는 「나」와 「또 다른 나」와의 갈등, 즉 自意識過剩 속의 自身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나」가 드러앉은 자리가 「거울」이거나 「찢어진 壁紙」거나 아니면 「그사기첩」이거나 간에 그 분위기는 어둡고 불안한 것이다.

I

나는거울없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 무시위하며벌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러는陰謀를하는中일까.

II

.....(省略).....

III

나는거울있는室內로몰려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굴로同時

5) 林鍾國, “李箱의 生涯와 文學”, 「李箱全集」(서울: 正音社, 1973), p.164.

에 꼭들어온다. 거울속의 나는내게 未安한 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 囹圄되어있 드키그도나때문에 囹圄되어떨고있다.
〈「詩第十五」〉에서

「침울한 얼굴」로 「囹圄되어」 있는 「또 다른 나」의 해방을 꿈꾸는 곳에 李箱 詩의 에스프리 가 있는지도 모른다.

李箱 詩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양상은 性的 유희가 회화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프로이드는 libido(心的 에너지)를 eros(生の本能)와 thanatos(死的本能)로 나누고 eros(生の本能)의 거의 전부가 性的 衝動과 有關한 것으로 보았음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거니와 이 性慾本능이 억압되면 그것이 無意識 속에 잠재해 있다가 신경증등 신체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이나 예술 등 용인되는 행위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李箱의 作品에는 性戲를 그려낸 作品들이 많다.

그와 같은 섹스의 유희는 〈沈歿〉, 〈銃口〉, 〈狂女の告白〉, 〈生涯〉, 〈賣春〉, 〈顔〉 같은 그의 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남녀의 생식기와 手淫 같은 것을 암호로 기록한 저서였다. 그러한 낙서를 하며 그는 독자와 이 세상을 모독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했다.⁶⁾

李箱이 성희를 그려 놓은 작품 한두 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죽고싶은마음이 칼을찾는다. 칼은날이접혀서퍼지지않으니 날을怒號하는絶壁에꽂히려든다. 억지로이것을안에메어밀어넣고또懇曲히참으면어느결에날이어디를건드렸나보다. 丙出血이뻘뻘해온다. 그러나皮膚에傷채기를얻을길이없으니惡露나갈門이없다. 가친自殊로하여體重은점점무겁다.

—〈沈 歿〉—

毎日같이烈風이 불드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 닿는다. 沈惚한 指紋 골짜기 로 땀내 가스며 드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 내 消化氣管에 목지한 銃身을 느끼고 내 다물은 입에 매 끈한 銃口를 느낀다. 그리드니 나는 銃쏘으드키 눈을 감으며 한밤 銃彈 대신에 나는 참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어 배안었느냐.

—〈詩第九號 銃口〉—

「沈歿」에서의 「칼」과 鳥瞰圖中 「詩第九號 銃口」에서의 「銃身」은 다 男根의 隱喩임이 分

6) 金字鍾, 「韓國現代小說史」(서울: 宣明文化社, 1973), pp. 170~171.

明하니 이들 作品들은 다 性戲를 그려낸 것들이라 해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칼은 날이 접혀서 퍼지지」 않거나 「皮膚에 傷채기를 얻을 길이」 없어 「가친 自殊로 하여 體重은 점점 무겁다」고 한 것이 「沈歿」이요, 「銃 쏘으드키 눈을 감으며 한밤 銃彈 대신에 입으로 무엇을 내어 배알고 마는 것이 「銃口」라는 데 문제가 있다.

性的 衝動의 역제는 李箱의 경우 「거울 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自責妄想에 빠지기도 하고 女子에 대한 심한 揶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웃음이 마침 내엿과같이 걸쭉걸쭉하게 찢더거러서 초콜레이트를 다 삼켜 버리고 彈力剛氣에 찬 온갖 標의 온모 다 無用이 되고 웃음은 散散히 부서지고 도웃는다…… 여자는 羅漢을 벤(孕) 것인 줄 다들 다들 알고 여자도 안다. 羅漢은 肥大하고 여자의子宮은 雲母와 같이 부풀고 여자는 독과 같이 딱딱한 초콜레이트가 먹고 싶었던 것이다.

—<「狂女の 告白」에서>—

日歷은 초콜레이트를 늘인다.

여자는 초콜레이트로化粧하는 것이다.

—<「興行物天使」에서>—

「狂女の 告白」이나 「興行物天使」 등에서 쓰인 초콜레이트도 男根의 隱喩임이 分明하고 보면 그의 詩는 성희로 가득차 있다 해서 過言이 아니다.

이 외에도 性戲의 편린을 엿볼 수 있는 作品으로는 「破帖」등 많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燈불이 칩칩하니 妓女賊乳白의 裸體가 참 魅力 있는 汚穢가 아니면 乾淨이다.

—<「破帖」에서>—

「이 小姐는 紳士李箱의 夫人이나」 「그렇다」 나는 거기서 鸚鵡가 怒한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었겠느니라.

鸚鵡二匹

二四

勿論 나는 追放당하였느니라 追放당할 것 까지도 없이 自退하였느니라 나의 體軀는 中軸을 喪失하고 또 相當히 踏破하여 그랬던지 나는 微微하게 涕泣하였느니라.

—<「詩 第六號」에서>—

나를 넘어뜨릴 疲勞는 오는 倏倏 避해야겠지 만이런 때는 大膽하게 나서서 혼자서 도넛 넉히 雌雄보 다 별 것이어야겠다. 脫身 신발을 벗어버린 말이 虛天에서 失足한다.

—<「買春」에서>—

9

疎한 것은 密한 것의 相對이며 또한 平日한 것은 非日한 것의 相對이었다. 나의 神經은 娼女보다도 더 肉貞淑한

處女를願하고있었다.

10

말(馬)

땀(汗)

—<「수염」에서>—

「破帖」에서의 「女賊乳白의 裸體」나 「詩第六號」에서의 「鸚鵡」는 性行爲의 對象이요, 「體軀는 中軸을 喪失하고」(詩 第六號), 「脫身 신발을 벗어 버린 말이 虛天에서 失足한다」(買春), 「말(馬), 땀(汗)」(수염) 등은 다 性行爲를 暗隱한 것들이지만 그 行爲의 主體는 健壯한 수컷이 아니라 虛弱한 體質의 한 마리 말(馬)일 뿐이다.

李箱의 詩들에서 찾아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自殺」(suicide)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精神分析學에서 死의 本能(thanatos)은 유기체가 무기물로로부터 파생된 存在로서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것의 전형적인 예가 自殺이다.

自殺(suicide)은 自己의 慾求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慾求不滿에 직면하게 될 때 그 責任을 自己에게 돌리고 그 劣等과 無能를 증오하며 自身을 말살하려는 데서 일어난다.

바꿔 말하면 超自我가 libido의 대리자인 自我(ego)의 행동을 증오하고 비난하여 말살하려 할 때 自我가 이를 이겨내지 못해 일어나는 行爲다. 그런데 李箱의 作品에는 「自殺」이라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V

내가缺席한나의꿈. 내 僞造가 登場하지 않는 내 거울. 無能이라도 좋은 나의 孤獨의 渴望者다. 나는 드디어 거울속의 나에게 自殺을 勸誘하기로 決心하였다. 나는 그에게 視野도 없는 틀窓을 가리키었다. 그들窓은 自殺만을爲한 틀窓이다. 그러나 내가 自殺하지 아니하면 그가 自殺할수 없음을 그는 내게 가르친다. 거울속의 나는 不死鳥에 가깝다.
—<「詩 第十五」에서>—

내 마음의 크기는 한 개 卷煙기 먹기 만하다고 그렇게 보고

虛心은 숫제 성냥을 그어 卷煙을 붙여서는 숫제 내게 自殺을 勸誘하는 도다.

—<「無題」에서>—

「詩 第十五號」와 「無題」등에서 볼 수 있는 바는 「自殺을 勸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만 詩「一九三三, 六, 一」에서는「그날 나의 自書傳에 自筆의 訃告를 挿入」할 정도로 自殺을 예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自殺이 나타나 있는 作品들로는「且8氏의 出發」, 「1931年」등을 들 수 있다.

이러고 보면 李箱의 詩는 精神分析學의 影響으로 그 投影樣相은 自己 分裂과 性的 유희, 그리고 自殺의 유희 등의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

② 散文에 投影된 樣相

李箱의 作品世界는 대체로 보아 日常의 生活, 意識의 世界라기보다는 常識 밖의 일, 無意識의 世界다.

三三번지에서 매춘부를 아내로 둔「나」의 自意識을 그린「날개」도 그렇고, 姪이와 동거하는「나」와 그녀의 前愛人 尹과의 갈등을 다룬「童骸」 또한 그렇다.

어느덧 손수건만했던 별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칙칙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걸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늑흐늑한 공기에 다—비누처럼 풀어져서 온 데 간 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형질이나 메물쩍질로 뚱뚱찬 덩어리 배개와도 같은 한번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날개」에서>—

나는 바른 대로 말하면 애정 같은 것은 희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이튿날 신부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다행히 길에서 그 신부를 잃어 버렸다고 하자. 내가 그럼 밤잠을 못자고 찾을까. 그때 가령 이런 엄청난 글발이 날아들어 왔다고 내가 은근히 희망한다.

「소생이 모월(某月) 모일(某日) 길에서 죽은 바 소녀는 귀하의 신부임이 확실한 듯하기에 통지하오니 찾아가시오.」 그래도 나는 고집을 부리고 안 간다. 발이 있으면 오겠지, 하고 나의 옆두에는 그저 왕양(旺洋)한 자유가 있을 뿐이다.

—<「童骸」에서>—

論文을 쓰고 詩를 지을 줄 아는「나」인데도 손님들이 드나드는 아내방의 건너방 음침한 방구석에서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외출에서 문득 飛翔을 꿈꾸며「날개」를

아쉬워하는 얘기가, 왼손 무명지에다 털북으로 쌍반지를 그려 주고, 결혼을 한 「내」가 아내의 옛 애인 尹에게로 姪이를 데리고 가 실감을 하는 얘기 따위는 日常의 일이거나 意識世界에 있는 일이 아니라 常識 밖의 일 無意識世界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그는 「一種의 精神奔逸者」로서 「女人의 半만을 領收하는 生活」을 設計하고 살다가, 현란을 극한 정오에 現實을 향해 門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계로 飛翔을 꿈꾸고 마는 것이다. 李箱이 술집 酌婦이던 錦紅이를 아내로 맞았다가 헤어지기까지의 逢別에 얽힌 사연을 적은 1인칭 소설 「逢別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금홍이는 나를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千慮(千慮)의 일실(一失)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그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하루 나는 제목 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 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逢別記」에서>—

金東仁의 「감자」에서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쩡멀쩡, 앉아 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위는 李箱의 日常의 生活이나 意識의 世界를 作品化했다기보다 常識 밖의 일, 無意識의 世界를 作品化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李箱은 이 작품 전반부에서 날마다 밤마다 찾아 오는 금홍이를 禹라는 유학생의 독탕으로 들여 보내기도 하고 C라는 변호사로 하여금 금홍이 방을 범하게도 하는데 금홍이는 그들로부터 받은 지폐 여러 장을 꺼내 놓고 어리광 섞어 자랑을 하기도 하는 여자였지만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다.

위에서 든 「날개」나 「童骸」들보다 自意識이 더 強하게 노출되는 作品은 R카페 여급으로 나가는 아내를 가진 주인공이 여급들의 부도덕에 대한 생각을 독백체로 쓴 「窟窿會豕」다.

그래두저런꼬나불을한마리가지는게 화장품이나옷감보다훨씬낫습니다 . 좀처럼싫증나는법이없으니까
 ♪ —죽남자가외도하는아니—좀다릅니다— 하여간싸움을해가면서벌어다가그날저녁으로저꼬나불한테베
 앓기고나면—아니송두리째갖다바치고나면속이시원합니다. 구수합니다. 그러니까저를빨아먹는거미를
 제손으로기르는새음이지요. 그렇지만또이혀전한것울저꼬나불이다수곳이채워주거니하면아까운커녕즈
 이가되려저민가실습니다.

—<「窟窿會豕」에서>—

「아내」도 거미요, 「그」도 거미요, 「방」도 거미며, 「돈」도 모두 거미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그」는 아내가 카페 전무를 양태지라 했다가 발로 차이고서 받은 20원의 변상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여급을 찾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더 차이기를 바라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니 常識 밖의 일, 自意識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趙演鉉은 「날개」의 주인공 「나」가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追求하고 있는 세계와 「失花」 속에 등장시킨 「나」, 「너」, 「李箱」이란 세 人物의 관계를 통해서 追求하고 있는 세계가 常識的 普遍的 세계가 아닌 一種의 物異한 獨自의 世界임을 前提하고 「李箱의 特異한 獨自性이 讀者를 자극하거나 어떤 種類의 理解와 共感을 주게 되는 것은 그것이 全然히 存在하지 않은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의 無意識 또는 前意識의 世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⁷⁾ 이라고 본 것은 이런 意味에서 首肯이 가는 말이라 하겠다.

李箱은 1인칭 소설 「終生記」에서 「전광석화만큼 손가락이 자의식의 포로가 되었을 때」 또는 「자의식의 절정 위에 발돋움을 하고 올라선 단발마의 비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소설들은 그의 生活體驗을 바탕으로 썼으며 그것이 意識 이쪽의 세계가 아닌 自意識의 世界를 그려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李箱의 소설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特性은 主人公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이가 거개 大自己 自身 속에 틀어박혀 現實과 등을 지는 內閉症(autism) 환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오십 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좋을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 두고 한 것이 어느 결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날개」에서>—

이렇게 外界와 交渉이 없는 음침한 房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剝製가 되어 버린 天才」인 「나」의 生活이다. 內閉症 患者라야 가능해질 이러한 主人公들의 生活은 「날

7) 趙演鉉, 「現代韓國作家論」(서울: 文明社, 1969), p. 145.

개]뿐 아니라 「童骸」, 「鰥寡會豕」도 마찬가지로.

이 가련한 신부가 지금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나갔다. 내 짐작에 쌀과 나무와 숲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나간 것일 것이다. 그 동안 나는 심심하다. 안집 어린애나 불러서 같이 놀까. 전에 없이 불렀더니 얼른 나와서 내 방 미닫이를 열고,

「아침이에요」 그런다. 오늘부터 일전 안 준다. 나는 다시는 이 어린애와는 놀 수 없게 되었구나 하고 나는 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 성이 잔뜩 난 얼굴을 해 보이고는 뺨치듯이 방 미닫이를 딱 닫아버렸다. 눈을 감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자니까 으아하고 그 어린애 우는 소리가 안마당으로 멀어 가면서 들러 왔다. 나는 오랜 동안을 혼자서 덜덜 떨었다. —<「童骸」에서>—

그때참다못하여경부보가소리를질렀다. 그리고 그때가나미표의정당한남편인가이름은무엇인가직업은무엇인가하는질문에는질문마다 그저한없이공손히고개를숙여주었을뿐이었다. 고개만공연히숙였다치켰다할것이아니라 그때는그래고소할터인가즉말하자면이사람을어떻게하였으면 좋겠는가그렇습니다(당신들눈에내가구더기만큼이나보이겠오? 이사람을어떻게하였으면 좋을까는내가모르면경찰이알겠거니와그때내가하라는대로하겠다는말이오!) 지금내가어떻게하였으면 좋을까는누구에게 물어보아야되나요. 거기있는뜻그리고내안해의주인인나를위하여가르쳐주소. 어떻게하였으면 좋으리까눈물이어느사이에뺨을호르고있었다. 술이점점취하여들어온다. 그는이자리에서어떻다고차마입을벌릴정신도용기도없었다. —<「鰥寡會豕」에서>—

「축삭이 이런 정경(情景)을 도해한다. 유구한 세월에서 눈 뜨니 보자. 나는 교외 정건(淨乾)한 방에 누워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小説 「童骸」는 生活이 거의 없다.

가련한 신부가 독수공권으로 목장까지 가서 카스텔라나 산양유를 책보에 싸 가지고 올 때까지 나는 방 미닫이를 딱 닫고 혼자서 덜덜 떨기만 하는 것이다. 이런 「童骸」에서의 「나」는 R카페에 가는 아내를 발길질한 그 카페 전무를 보고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고 차마 입을 벌릴 정신도 용기도 없는, 「鰥寡會豕」의 「그」와 같이 內閉症 환자로서 같은 線上에 놓이는 人物들이다. 그의 隨筆 「倦怠」의 「나」도 그런 線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건만 來日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來日이라는 놈이 한 個 버티고 서 있다. 마치 凶猛한 刑吏처럼—나는 그 刑吏를 避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來日 속에서 또 나는 窒息할 만치 심심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해야 된다.

—<「倦怠」에서>—

李箱의 小說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의 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처에 性的 유희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少女는 그에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기고 싶었다. 「언제 또 만나뵙기 어려워요. 저는 내일 E 하구 동경으로 가요.」 이렇게 아주 순량하게 挑戰하여 보았다. 그때 그는 아마 이 挑戰의 상대가 분명히 그 자신인 줄만 잘못 알고 얼른 모가지 털을 불끈 일으키고 맞선다.

「그래? 그건 섭섭허군. 그럼 내 오늘 밤에 기념 스타프를 하나 찍기루 허지.」

少女는 가벼이 흥분하였고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어 보이기만 하였다.

—<「斷髮」에서>—

이는 性的으로 無能한 「그」의 戀愛心理를 적은 小說 「斷髮」의 한 부분인데 기념 스타프를 하나 찍기로 하는 것은 性行爲를 은유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性行爲는 「怨庵會豕」에서 보면 暗喻的 표현이기는 하되 좀더 노골화된다.

그러나 아주 까리같은 사치한 꽃이 핀다. 방은 밤마다 홍수가 나고 이틀 날이면 쓰레기가 한삼태기씩이나 왔고 안해는 목직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늦은 아침—오후네서—탈로 내려가서 그도 머리아파 두사람치의 해를 보고 들어온다. 금곳뚝이 안해는 작아들어갔다. 쇠와같이 독한 꽃—독한 거미—문을 닿자. 생명에 두껍을 덮었고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버릇을 달았고 그 자신을 달았다. 온갖 벗에게—온갖 관계에서—온갖 회망에서—온갖 욕에서—그리고 온갖 욕에서—다만 방 안에서만 그는 활발하게 발광할 수 있다. 미역 할듯 할 수도 있었다. 전등은 그런 습결 때문에 꼭 잘 꺼졌다. 밤마다 이방은 고달팠고 뒤집어엎었고 방안은 기어병들어가면서도 빠득빠득 버티고 있다.

—<「怨庵會豕」에서>—

이와 같은 性戲에 관한 얘기는 「날개」의 아내 房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아내의 過去를 拷問해 보는 「失花」와 「童骸」등 많은 곳에서 찾아진다.

李箱에 있어서 이러한 性的 衝動은 그의 詩에서와 마찬가지로 女子에 대한 심한 야유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예를 「失花」에서 찾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너는 뭐냐? 나미꼬? 너는 엇저녁에 어떤 마찌아이에서 방석을 비고 19分 동인—아니 어떤 빌딩에서 아까 너는 결실에 포개 앉았었느냐 탈해리—헤헤—飲鴆亭? N빌딩 비튼편에서부터 들췌 S의

사무실? (아—이 주착없는 李箱아, 東京에는 그런 것은 없읍네.) 제집의 얼굴이란 다마네기다. 암만 벗기어 보려프나. 마지막에 아주 없어질지언정 正體는 안 내 놓느니.]

—<「失花」에서>—

이러한 야유는 「童骸」에서 「나」라는 主人公이 아내로부터 尹과의 관계를 고백받고 「나는 아마 이 숙명적 업원(業冤)을 짊어지고 한 평생을 내리 번민해야 하려나 보다」고 탄식하는 심리적인 배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李箱의 小說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의 하나는 自殺問題가 빈번히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서 「詩 第十五號」와 「無題」, 詩「一九三三, 六, 一」 등에서 보아 온 것 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내 중립지대로만 알고 있던 건강술이 자칫하면 붕괴할 것 같은 위구가 적지 않다. 나는 조심조심 내 앉은 자리에 혹 유해한 곤충이나 서식하지 않는가 보살펴야 한다.

T군과 마주 앉아 싱거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내 눈이 여간 축축하지 않았단다. 그도 그럴밖에 나는 시시각각으로 자살할 것을 그것도 제 형편에 꼭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으니.

내가 받은 자결(自決)의 판결문 제목은 「피고는 일조(一朝)에 인생을 낭비하였느니라. 하루 피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이 건곤(乾坤)의 경상비를 구태여 등귀(騰貴)시키는 것이어늘 피고가 들어가고자 하는 쥐구멍이 거기 있으니 피고는 모름지기 그리 가서 뽕무니 쪽을 돌아다보지는 말지어다.

—<「童骸」에서>—

「童骸」의 마지막 小單元 「顛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일착선수」인 尹과 그가 「며다냉긴」 아내가 일조 이조하는 문장처럼 나란히 극장에서 나와 인과 속으로 숨어버리는 걸 보고 신발 바꿔 신은 인간 코메디를 통해 줄곧 自殺을 생각하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끝맺어진다.

공포에 지질리면서 정신이 점점 몽롱해 들어기는 빅두에 T군은 은근히 내 손에 한 자루 서슬 퍼런 칼을 쥐어 준다.

<복수하라는 말이렷다>

<윤을 찔러야 하나! 내 결정적 패배가 아닐까? 윤은 찌르기 싫다>

<임이를 찔러야 하지? 나는 그 독이 핀 눈초리를 망막에 영상한 채 往生(往生) 하다니 내 심장이 뽕뽕 얼어 들어 온다. 딱드득딱드득 이가 갈린다.>

〈아하, 그럼 자살을 권하는 모양이로군. 어려운데,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내 비겁을 조소하듯이 다음 순간 내 손에 무엇인가 콩글뜨듯한 덩어리가 쥐어졌다. 그것은 서먹서먹한 표정의 나쓰미짱, 어느 틈에 T군은 이것을 제 주머니에다 넣고 왔더군. 입에 침이 좌르르 들기 전에 내 눈에는 식은 접에 어리는 이슬처럼 방울지지 않는 눈물이 뿜 들기 시작했다.

—〈「童骸」에서〉—

「童骸」에서 볼 수 있는 이런自殺에의 충동은「失花」,「幻視記」에서도 찾아지고 그의隨筆「山村餘情」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러고 보면精神分析學的 要因이李箱의 散文에 投影된 樣相은 意識의 世界보다 無意識의 世界가 作品化되고 있다는 점과 主人公의 大部分이 內閉症患者이라는 점, 그리고 도처에 性的 유희가 깔려 있고 自殺의 충동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Ⅲ. 結 論

이상에서 筆者는 精神分析學的 要因이 李箱文學에 어떻게 投影돼 있느냐를 살펴본 셈이 된다. 詩와 散文으로 나누어 展開된 그 論旨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詩의 경우

1) 李箱詩의 作中 나는 自意識 過剩 속에서 自我分裂을 일으키는데 分裂된 내가 머무는 자리는 거개가 거울이다.

詩「거울」,「扇詩明鏡」, 烏瞰圖中「詩第七號」,「詩第八號」,「詩第十號 나비」,「詩第十五號」,「線에 關한 覺書七」,「一九三一年」등 도처에 그 거울은 있거니와, 그것은「詩第十號 나비」에서의〈찍어진 壁紙〉,「詩第十一號」에서의〈그 사기컵〉등으로 代置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自我分裂은「無題」에서는 處心이「재떨이를버리듯이나를」쫓기도 하고「位置」에서는「나는못견더 帽子를쓰고밖으로나가버렸는데웬사람하나가여기남아」있기도 한다. 烏瞰圖中 詩第四號도 거울에 비친 한 단면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니 이 때의 患者는 自意識過剩 속의 自身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또 다른 내」가 드러났은 자리는 어떤가 하면 대체로 어둡고 불안한 것이다.

「침울한 얼굴」로 「囹圄되어」 있는 「또 다른 나」의 해방을 꿈꾸는 곳에 李箱 詩의 「에스프리」가 있다고 보겠다.

2) 李箱 詩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양상은 性的 유희가 회화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沈歿」에서의 칼, 「銃口」에서의 銃身, 「狂女の告白」과 「與行物天使」에서의 「초콜레이트」는 다 男根의 隱喩임이 分明하고 「破帖」, 「詩第六號」, 「買春」, 「수염」 등에서도 性戲의 暗喩를 찾을 수 있다.

3) 그의 詩에서 찾아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자살의 충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詩第十五號」, 「無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는 「自殺을 勸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詩 「一九三三, 六, 一」에서는 「그날 나의 自叙傳에 自筆의 訃告를 挿入」할 程度로 自殺을 예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自殺의 충동이 나타나 있는 作品으로는 「且8氏의 出發」, 「1931年」 등을 들 수 있다.

2. 散文의 경우

1) 李箱의 作品世界는 대체로 보아 日常의 生活, 意識의 世界라기보다는 常識 밖의 일, 無意識의 世界다.

三三번지에서 매춘부를 아내로 둔 「나」의 自意識을 그린 「날개」도 그렇고, 姪이와 동거하는 「나」와 그녀의 前愛人 尹과의 갈등을 그린 「童骸」도 그러하며, 술집 酌婦이던 錦紅이를 아내로 맞았다가 헤어지기까지의 逢別에 얽힌 사연을 적은 「逢別記」도 그러한데, 自意識이 더 强하게 노출되는 作品은 R카페 여급으로 나가는 아내를 가진 「그」의 여급들의 부도덕에 대한 생각을 독백체로 쓴 「鬮會豕」다.

李箱은 1일칭 소설 「終生記」에서 「전광석화만큼 손가락이 자의식의 포로가 되었을 때」 또는 「자의식의 절정 위에 발돋움을 하고 올라선 단말마의 비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小說들은 그의 生活體驗을 바탕으로 썼으며 그것이 意識 이쪽의 世界가 아닌 自意識의 世界를 그린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의 小說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양상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이가 自己

自身 속에 틀어박혀 現實과 등을 지는 內閉症 환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外界와 交涉이 없는 음침한 房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날개」에서 「剝製가 되어 버린 天才」인 나의 生活이다.

內閉症患者라야 可能해질 이러한 主人公들의 生活은 「날개」뿐 아니라 「童骸」의 「나」 齣齣會齣의 「그」, 그리고 그의 隨筆 「倦怠」에서의 「나」가 다 같은 線上에 놓일 人物들이다.

3) 그의 小說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樣相은 그의 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처에 性的 유희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性的으로 無能한 그가 「기념 스타프를 하나 찍기로」 하는 것은 性行爲를 은유한 것이거나 이러한 性行爲는 「齣齣會齣」에서는 암유적 표현이기는 하되 좀더 노골화된다.

이와 같은 性戲에 관한 얘기는 「날개」의 아내 房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아내의 過去를 拷問해 보는 「失花」와 「童骸」 등, 많은 곳에서 찾아진다.

4) 李箱의 小說에서 찾아지는 또 하나의 樣相은 그의 詩에서와 마찬가지로 「自殺」의 幢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童骸」의 마지막 小單元 「顛跌」은 신발 바꿔 신은 인간 코메디를 보면서 출근 自殺을 생각하는 내용으로 메워져 있다. 이와 같은 自殺에의 幢동은 「失花」, 「幻視記」에서도 찾아지고 그의 隨筆 「山村餘情」에서도 나타나 있다.

<參考文獻>

1. 高 銀. 「李箱評傳」, 二版. 서울: 民音社, 1975.
2. 具然弼. “三四文學과 超現實主義”, 「詩文學」. 1975, 11~12.
3. 金明熙·鄭永潤. 「心理學」, 改訂三版. 서울: 博英社, 1975.
4. 金炳燮等.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서울: 民音社, 1972.
5.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 서울: 國民書館, 1973.
6. 金容稷. 「韓國文學의 批判的 省察」. 서울: 民音社, 1974.
7.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서울: 一志社, 1974.
8. 金容稷等. 「現代韓國作家研究」. 서울: 民音社, 1976.
9. 金宇鍾. 「作家論」. 서울: 同和出版社, 1975.
10.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서울: 宣明文化社, 1973.
11. 金允植. 「韓國近代文學의 理解」. 서울: 一志社, 1973.
12. 金允植. 「韓國現代詩論批判」. 서울: 一志社, 1975.
13. 金允植. 「韓國近代作家論抄」. 서울: 一志社, 1974.
14.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서울: 民音社, 1974.
15. 文德守. 「現代文學의 摸索」. 서울: 修學社, 1969.
16.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 上」. 서울: 成文閣, 1975.
17.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 下」. 서울: 成文閣, 1975.
18. 文藝. 1959년 11월호.
19. 宋 弼. 「文學評傳」. 서울: 一潮閣, 1975.
20. 語文閣. 「新韓國文學全集, 六」. 서울: 語文閣, 1974.
21. 語文閣. 「新韓國文學全集, 一六」. 서울: 語文閣, 1974.
22. 尹柄魯. 「現代作家論」, 國語國文學叢書, 第2輯. 서울: 宣明文化社, 1974.
23.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서울: 新丘文化社, 1975.
24. 任重彬. 「否定的 文學」. 서울: 한얼문고, 1972.
25. 任軒永. 「韓國近代 小說의 探究」. 서울: 汎友社, 1974.
26. 正音社. 「李箱詩集」. 서울: 正音社, 1973.
27.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서울: 一志社, 1974.
28. 趙演鉉. 「現代韓國作家論」. 서울: 文明社, 1969.

31.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大邱: 螢雪出版社, 1969.
32. 韓國文化開發社. 「韓國雜誌叢書 四」. 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33. Underwood, Robert S. 「現代心理學」, 이숙진譯. 서울: 문교부, 1962.
34. Freud, Sigmund. 「꿈의 解釋, 上」, 이용호譯. 서울: 백조출판사, 1973.
35. Freud, Sigmund. 「꿈의 解釋, 下」, 이용호譯. 서울: 백조출판사, 1973.
36. Freud, Sigmund. 「精神分析學人間, 上」, 프로이트選集, [. 서울: 白潮出版社, 1975.
37. Freud, Sigmund. 「精神分析學人間, 下」, 프로이트選集, II. 서울: 白潮出版社, 1975.
29.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概觀」. 서울: 民音社, 1974.
30. 知性. 2卷 2號, 知性社.